

# 주택시장 매서운 한파... 위기감 높아지는 건설업계

### 광주·전남 분양 시장 얼어붙어 대부분 청약경쟁률 1대1 이하 부동산 시장 침체의 늪 속으로 이대론 내년 건설업체 부도 속출

부동산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청약시장에도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최근 광주·전남지역 분양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1대1'을 넘지 못하고, 한 평에서는 청약 1순위 접수가 아예 없는 단지도 나왔다.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대출금리가 크게 치솟으면서 집을 살 여력은 점점 줄어들고, 집값 역시 떨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침체의 늪에 빠지고 있다.

이처럼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자 건설업계의 위기감도 짙어지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개선되지 않으면 자금력이 부족한 건설업체의 부도가 속출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전망마저 나온다. 무엇보다 지역 산업계에서 건설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큰 데다, 건설현장이 멈춰 서면 일용직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지역 경제계의 우려도 크다. 2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달 5일부터 7일까지 청약을 접수한 아파트 단지는 전용 84㎡ 232가구 공급에 1순위 청약 접수가 단 한 건도 없었다. 2순위 청약에서도 3건밖에 접수가 되질 않았다. 전체 공급물량의 0.86%만 청약이 접수된 것이다. 앞서 지난 달 7일부터 9일까지 청약을 접수한 여수의 한 아파트 단지도 총 232가구(84㎡ 230가구·179㎡ 2가구) 중 1순위 청약은 77

건만 접수됐다. 2순위 청약 접수는 39건으로, 모두 116건이 접수됐다. 전체의 절반(50%) 수준이다. 광주에서도 청약 한파는 매섭다. 광주 북구에 들어서는 한 아파트 단지는 이달 5일부터 7일까지 청약기간 동안 84㎡ 227가구 중 1순위 청약 접수는 71건에 불과했다. 2순위는 27건으로, 43.2% 수준인 98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달 21일부터 23일 청약을 접수한 광주 서구의 또 다른 단지는 116㎡ 143가구 중 1순위 접수는 단 2건 뿐이었다. 2순위는 20건으로 총 22건(15.4%)의 청약접수가 이뤄졌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뜨거웠던 청약의 열기가 차갑게 식어버린 것은 고금리와 대출규제로 인한 부동산 경기침체에, 집값의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악순환이 멈추지 않으면 1997년 외환위기

와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건설업계의 '죽도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주택산업연구원의 '2023 주택시장 전망'에 따르면 고금리와 집값 급락으로 주택시장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현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거의 중단된 상태다. 또 브릿지론 등으로 지원된 자금의 대환이 막혀 건설업체의 자금난이 증폭, 이런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내년 상반기 보유현금이 부족한 건설업체부터 부도가 속출할 수 있는 실정이다. 주산연은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들 업체에 자금을 지원한 2금융권의 부실로 전이돼 우리 경제에 2차 충격이 가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2020년 기준 광주의 건설업 사업체는 1만5314개, 종사자는 8만1661명이다. 전남은 2만3632개, 11만2334명이다. 여기에 부동산업은 광주 9243개 2만4020명, 전남 5154개 1만3334명으로 파악됐다.

건설 및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인구만 광주·전남에 23만1349명에 달한다는 얘기가. 여기에 건설사에 자재를 납품하는 제조업체, 레미콘업체 등을 포함하면 그 숫자는 더 늘어난다. 특히 광주는 전체 산업에서 건설업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부동산시장 침체와 건설업계의 불황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광주의 한 주택건설업체 관계자는 "무작정 분양을 미룰 수도 없는 일이다. 지금은 분양을 해도, 안 해도 모두 걱정스럽다"며 "청약 시장이 위축되면서 분양에 나서 자금을 확보해야 할 지역의 일부 중소 건설사는 부담스러운 수밖에 없다. 현금 유동성 위기에 처한 건설사들의 부도 사태가 발생하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도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상위 7% 고급 커피 맛 보세요 세계 상위 7% 안에 드는 최상급 커피를 내세운 호주 '폴 바셋' 매장이 지난 23일부터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하 1층 푸드 에비뉴에 문 열었다. 매장 전경.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 광주은행 임원 4명 발탁 인사·조직 개편

### 데이터전략·자산관리본부 신설

광주은행이 신규 임원 4명을 내부 발탁하는 임원 인사를 27일 단행했다. 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전략본부와 자산관리본부를 신설하는 조직개편도 동시에 진행했다. 광주은행은 이날 임원급 부행장보 4명을 내부 발탁해 선임하는 임원 인사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존 부행장(보) 3명은 퇴임하고, 박성우(55) 현 평동공단금융센터장, 정일선(54) 인사지원부장, 김재춘(53) 영업추진부장, 김용규(52) 종합기획부장이 신임 부행장보에 선임됐다. 광주은행은 이번 인사에 대해 "업무 능력이 탁월하고 영업실적이 우수한 영업통과 전문성을 겸비한 혁신적인 인사를 단행했다"고 자평했다.



박성우 부행장 정일선 부행장



김재춘 부행장 김용규 부행장

조직개편에서는 데이터 기반 상품 개발을 강화하기 위해 데이터전략본부를 신설했다. 개인 자산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자산관리본부도 새로 생긴다. 이 과정에서 업무 중복을 피하고 소관부서를 명확히 조정하면서 업무 효율화를 꾀했다. 지난해 디지털전략본부와 디지털영업본부로 분리했던 사업 영역은 디지털본부로 통합한다. 디지털본부 아래에는 디지털기획부와 디지털플랫폼부, 디지털금융센터, 고객센터를 둔다.

광주은행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기업 안정과 영업력 확대를 꾀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변화를 위한 준비 태세를 갖췄다. 송중욱 광주은행장은 "업무 능력과 열정, 그리고 대내외 평판을 모두 고려했으며, 무엇보다 광주은행의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해 고객 중심 지역 대표은행으로 만들어 갈 적임자를 신임 임원으로 발탁했다"며 "각 임원의 장점을 충분히 살려 적재적소 배치를 통해 조직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정책을 통해 건강하고 조직문화를 정립하는 한편, 전문성과 영업력을 인정받는 직원들을 대거 발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신협, 스포츠 후원 조대여고·목포공고 선정

신협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지역 체육 꿈나무를 육성하기 위한 '학교 스포츠 단체 후원사업'을 발표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신협 광주전남본부와 광주중앙신협은 조선대학교 여자고등학교 핸드볼부를 찾아 후원금 1000만원을 전했다. 조대여고 실내 경기장에서 열린 후원 행사에는

핸드볼부 선수들과 정명수 광주중앙신협 이사장, 김영하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이 참석했다. 신협은 올해 전국 12개 스포츠 단체를 후원하고 있으며, 광주·전남에서는 조대여고와 목포공업고등학교 축구회가 후원 대상이다. 지난 2019년 시작한 신협 '학교 스포츠 단체 후원사업'은 비인기 종목이거나 장차 유망하다고 여

겨지는 학교 스포츠 단체를 후원하는 사회공헌 성격의 사업이다. 신협은 열악한 환경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노력하는 선수들의 꿈을 응원하고, 더 나은 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스포츠용품과 장비 등의 지원을 통해 우수 선수를 발굴·육성하고 있다. 김영하 본부장은 "스포츠 꿈나무 지원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고 있는 지역 사회 유소년층에 희망을 전달할 수 있도록 신협이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 경찰관·시민 소통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 어반에이핏 '시민 경찰학교' 기획 공동체 치안의식 함양 도움 기대

썬어반에이핏은 '2022년 산업융합형 메타버스 플랫폼 실증사업'을 통해 경찰관과 시민이 소통하고 정보제공도 할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지역 사회 경찰활동을 위한 경찰 메타버스 플랫폼'을 개발한다고 27일 밝혔다. 모바일 기반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시민들은 자치경찰 책무와 기반되는 소통과 교육영상 시청, OX퀴즈, NPC 퀘스트 등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이런 메타버스 내에서 활동을 통해 공동체 치안의식 함양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현장 경찰에게는 지역공동체와 소통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해 경찰관과 지역주민 간 전용 소통창구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해당 메타버스 플랫폼은 현재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시민 경찰학교'를 모티브로 기획된 모바일 기반(안드로이드, IOS) 플랫폼으로, 차세대

대국민 메타버스 정부 서비스 지원 방향에 맞춘 공공(경찰) 메타버스 서비스망 구축을 목표로 제작된다. 메타버스 공간에서 자신의 아바타가 온라인 공간을 이동하며 다른 사람의 아바타와 상호작용을 통해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도록 구성, 주도적 시민참여가 가능한 서비스를 제작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컨소시엄 구성은 썬어반에이핏, 썬파콤, 썬네비웍스, 썬로커스 등 4개사가 공동연구개발을 수행, 수요자인 경찰대상학생력단도 컨소시엄 구성에 포함됐다. 한편 썬어반에이핏은 메타버스를 통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클라우드 기반 프로젝트 경험을 바탕으로 헬스케어,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된 메타버스 플랫폼을 기획, 구축하고 있다. 또 메타버스 콘텐츠의 3차원 객체 위치 측정 기술, 가상현실(XR) 구현을 위한 인체 측정 및 관절 추적 기술, 답러닝 객체 인식기술 등 메타버스 구축에 필수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동구 무등산상가거리, 특성화 기반 조성 박차

### 결재·신뢰·청결 3대 서비스 혁신 문화·관광 접목 특화 상점가 육성 은누리상품권 쇼핑체험 등 활력

광주시 동구 무등산상가거리 상점가가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의 특성과 첫걸음 기반조성 사업을 성공적인 진행으로 다시 활력을 찾고 있다. 2022년 무등산상가거리 특성화 첫걸음사업 육성사업은 특성과 상점가 육성사업에 앞서 기초역량을 갖춘 상점가를 대상으로 편리한 결제와 고객신뢰, 위생 및 정결분야 등 3대 서비스를 혁신하고 상인조직과 안전관리 분야 역량 강화 등을 사전 지원하는 사업으로 무등산상가거리 상점가를 문화와 관광을 접목한 특성화 상점가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무등산상가거리 상인회(회장 김동훈)와 무등산상가거리 특성화첫걸음사업 육성사업단(사업단장 변운호)은 이 사업으로 소회기와 제세동기 비치, 구급상자 설치 등으로 상점가 안전관리 소회·화재 안전분야를 강화했다. 또 최근에는 '키즈마켓데이'를 열고 지역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 130명이 참여한 가운데 은누리상품권 전통시장 쇼핑체험, 에코백작바구니 제작 체험, 무등산 등산체험 등을 진행해 호응을 얻었다. 사업 결과 41%대에 머물렀던 은누리상품권, 제로페이 가맹률이 92%로 상승했고, 상생카드 가맹률 역시 41%에서 100%로 대폭 증가하는



무등산상가거리 상인회가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은누리상품권 전통시장 쇼핑체험을 진행했다.

성과를 일궈냈다. 이와 함께 상인교육, 상인동아리 육성을 통해 상인들의 서비스 역량을 대폭 강화하였으며 무등산 환경 보호를 위한 ESG경영의 일환으로 친환경 재생봉투를 등산객에게 나눠주고 무등산에서 쓰레기를 수집해보면 상가에서 기념품을 제공하는 '무등산 쓰레기 산행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상권의 특성과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고객 친화형 변화를 모색했다. 무등산상가거리상인회는 또 2.5km 구간의 상가거리 정비사업을 통해 고객들의 쇼핑과 이용 환경 향상에 노력했으며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상가 주변 환경정리 사업인 '클린데이

운영'과 상점별 위생·청결 강화, 디자인 정비사업 등을 통해 상점들의 경쟁력 강화와 상인 만족도, 고객만족도가 상승하는 결과를 얻었다. 무등산상가거리상인회는 이번 특성과 첫걸음 기반조성 사업의 성공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도전할 계획이다. 김동훈 무등산상가거리상인회장은 "특성화 첫걸음 기반조성 사업을 통해 상인들과 상권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고객 친화적인 상가로 변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반드시 유치해 더 도약하는 상권이 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농협 광주본부 폭설 피해 농가 지원 총력

농협 광주지역본부와 광주지역 농협들은 지난 주말 폭설로 인한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영농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관련 지원을 펼쳤다고 27일 밝혔다. 고성신 광주지역본부장과 농협 임직원들은 대촌농협 소속 꽃고추 시설 농가를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출력을 도왔다. 임곡농협은 지역 제설단에 유류 1500 l를 지원하며 농촌 불편 해소에 나섰다. 제설단은 고령 농업인이 많은 농촌의 도로와 마을 입구에 쌓인 눈을 치우며 주민 불편을 덜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332.79(+15.65)
▲ 코스닥	704.19(+9.51)
▼ 금리(국고채 3년)	3.662(-0.001)
▼ 환율(USD)	1271.40(-3.40)